

A large yellow flower with dark brown center, partially visible in the top left corner.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제

7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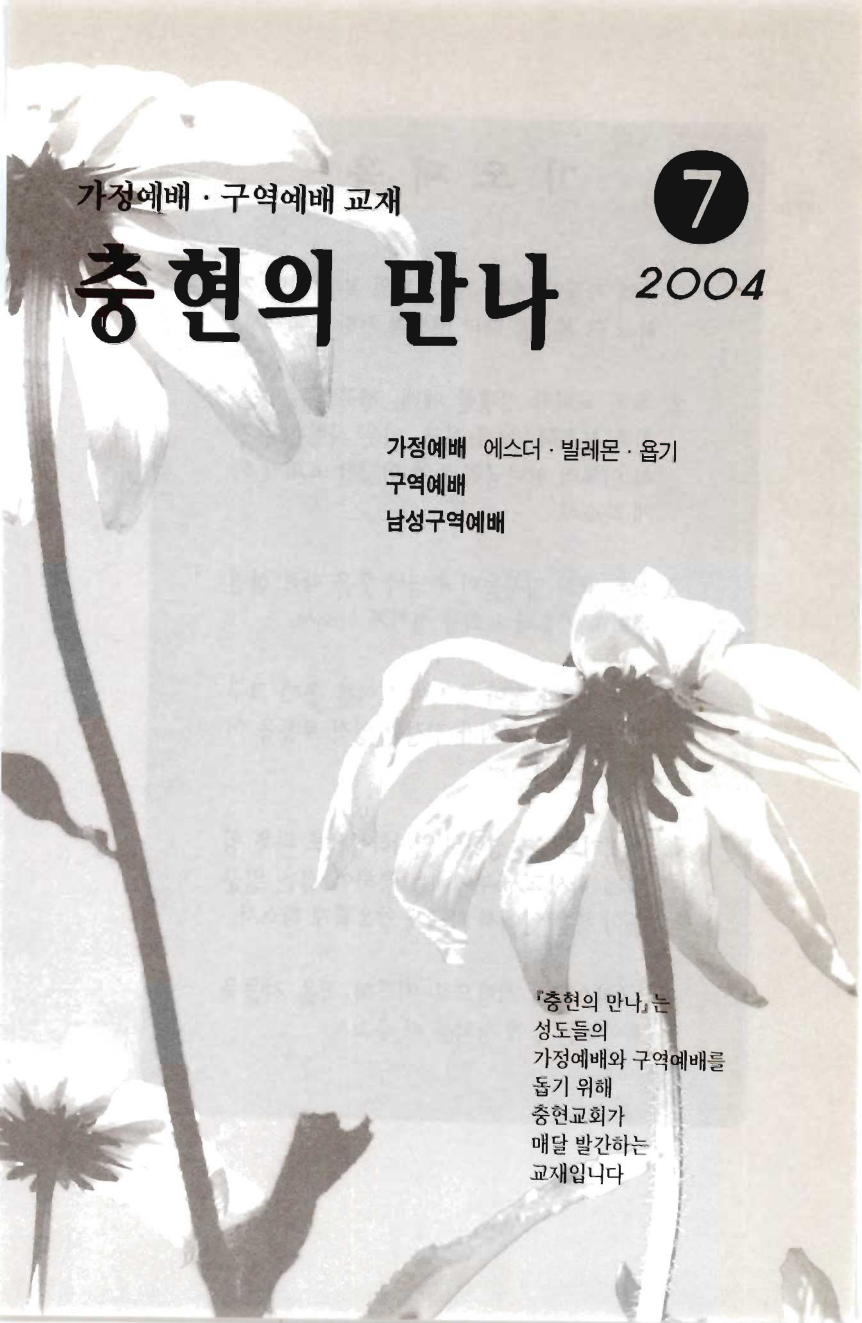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에스더 · 빌레몬 · 욕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A large yellow flower with dark brown center, fully visible in the middle right section.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7

2004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에스더 · 빌레몬 · 욕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약 속



마음에 늘 사모하는 것 있으니
주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
눈으로 보기 원하는 것이라.

주의 은혜 교회에 이슬처럼 내리어
복음의 역사 백합화 같이 신속히 자라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 깊이 내리며
드넓은 가지 온 세상에 뻗쳐 구원의 그늘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 레바논 백향목처럼
온 세상 진동케 하리라 하시던 그 약속(호 14:5-6).

아, 이 약속 이루어지는 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교회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으며 그리스도께 돌아오리니
그 날이 되면
주의 또 다른 약속 우리 눈으로 보게 되리.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호 14:7).

시원한 그늘이 그리운 이 계절에 충현교회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죄와 정욕으로 뜨거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의 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과 눈물로 씨 뿌리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위하여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구약 성경 가운데 읽기 쉽지 않은 책이 몇 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욥기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는 욥기가 쉽지 않은 고대(古代)의 표현들과 복잡한 대화 양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편견 없이 읽어 가면,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풍성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욥기를 읽을 때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까?

첫째로, 욥기를 읽어나갈 때 욥이 고난 가운데 던져진 분명한 이유를 잊으면 안 되겠다. 사단은 욥을 포함한 경건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을 뿐 진심으로 믿지는 않는다고 비방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단이 그릇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인 욥을 시험의 대상으로 내어주시며 고난 속에 던져지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이 욥이 고난에 던져진 분명한 이유이다. 혹 어떤 이들은 욥이 처음에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자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불의와 죄를 깨닫고 참된 신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욥기 1장에 기록된 욥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평가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욥 1:8).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인 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평가하시는 법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참 신자였으며, 바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난 속에 던져진 것임을 염두에 두고 욥기를 읽도록 하자.

둘째, 욥기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해석의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욥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닥치는 재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악인들이 편안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욥기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욥기를 읽어나갈 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내로 시험을 이기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불평하

기도 했다. 이런 욕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셋째, 욕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제기하는 바, 고난의 이유에 대한 해석들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안목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고난은 항상 죄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이들의 눈에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중죄인일 수밖에 없다(욥 5:17:8:6:11:6). 이들은 끝까지 그러한 관점에서 욕을 비난하고 욕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잘못을 범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도 매우 귀한 진리의 파편들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욕의 친구들의 말이 왜 잘못된 것인지 잘 판단해 보아야 하고, 그들의 말 가운데 담겨있는 진리의 파편들도 유심히 살펴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아야 한다.

넷째, 욕이 보인 인내의 모습을 잘 찾아보도록 하자. 성경은 욕의 고난을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홀히 여기는 자시니라”(약 5:11). 이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평가이다. 그러므로 욕기를 읽어나가면서 고난 속에서 성도의 인내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도록 하자.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욕이 교만하여 불평하며 자기 의만 내세운 것처럼 해석하기도 하나, 이는 성경 전체의 해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물론 욕의 인내에는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분명히 인내했고, 주께서 그에게 다시 복을 주셨다고 기록한다. 그러므로 욕이 보인 인내를 찾아보고 배우도록 하자.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고난 속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분해

1. 머리말(1:1-2:13)

- (1) 욕의 성품(1:1-5)
- (2) 욕의 재난(1:6-2:10)
- (3) 욕의 세 친구들의 방문(2:11-13)

(4) 제3단계 변론(22:1-31:40)

- (5) 엘리후의 변론(32:1-37:24)
- (6) 하나님의 말씀(38:1-42:6)
 - ①하나님의 첫번째 말씀(38:1-40:2)
 - ②욕의 침묵(40:3-5)

2. 욕과 친구들의 대화(3:1-42:6)

- (1) 욕의 탄식(3:1-26)
- (2) 제1단계 변론(4:1-14:22)
- (3) 제2단계 변론(15:1-21:34)

③하나님의 두번째 말씀(40:6-41:34)

④욕의 회개(42:1-6)

3. 끝맺는 말(42:7-17)

왕은 처형당한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하만이 가졌던 직위를 모르드개에게 하사했습니다(1-2절). 하지만 하만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멸절시키라는 왕의 조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유대인을 멸절시키라는 내용의 조서를 취소해 줄 것을 다시 간청했고, 왕은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3-8절).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대적들을 살육하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새롭게 작성되어 제국의 모든 지방에 반포됨으로써 유대인들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9-14절).

에스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 사람ियो,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살육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 조서를 취소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같이 유다 민족의 운명이 평범했던 한 여인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자를 들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구원했지만 실제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늘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사용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대인들을 살육하기로 작정되었던 12월 13일에 오히려 유대인의 대적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개의 권력은 점점 굳건해졌습니다(1-4절). 유대인들은 수산 성에서 오백 명의 대적을 죽이고 하만의 아들들도 죽였으나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습니다(5-10절). 에스더는 대적을 살육하는 날을 하루만 더 연장해 주기를 간구했고 왕은 그 부탁을 들어 주었습니다(11-16절). 그 후 유대인들은 14일을 잔치로 기념했고, 수산 성의 유대인들은 살육의 기간을 하루 연장 받았기 때문에 15일을 잔치로 기념했습니다(17-19절).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이 날을 '부림절'로 기념하여 지키고 자손 대대로 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20-32절).

본 장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은 도구로 사용될 뿐 그 모든 일들을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요?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시 12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면 반드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으며 주와 함께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 / ①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② '위임묵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모르드개는 한때 하만의 눈 밖에 나서 목숨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개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죽을 뻔 하였습니다. 하만이 앙심을 품고 유대인들을 살육할 계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한 순간에 극적으로 역전되어 하만은 줄지에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개는 아하수어로 왕의 신임을 얻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앞뒤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만과 같이 악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살육하려 꾀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순간에 그 모든 꾀를 허물어뜨리고 악인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안위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요, 하나님의 흔적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모든 것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빌레몬서는 골로새에서 도주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비록 노예 신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리가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납과 사랑은 윤리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드려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용서와 신적 사랑에 기인합니다. 요컨대,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누구든지 계급이나, 지위나, 성별이나 인종을 따지지 않고 서로 잔뜩을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충고하는 바울의 방법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써 빌레몬에게 강력하게 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존하여 빌레몬에게 겸손히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이런 심정과 태도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심정과 태도입니다. 흔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를 한답시고 우리 자신의 권위를 엄격하게 내세우기가 쉬우며 그들을 무시하는 입장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히 12: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권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모든 언행심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로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부를 누리는 욕과(1-5절), 욕에 대해 시험할 것을 획책하는 사단과 그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6-12절), 그리고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욕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3-22절). 사단의 교활한 간계와 하나님의 제한적인 허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 장은 앞으로 욕이 당할 시련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제시해 준 것이며, 이를 극복한 욕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하나님의 공의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간계가 삽입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의 간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장에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제한적인 행동을 허락하셨습니다(12절).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욕을 괴롭게 한 장본인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선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의 경우에서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이 우리의 삶에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깊이 헤아리고 확신하던 사람만이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욕이 보여준 신앙은 한 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쌓이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시험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사단의 새로운 계교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 욥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육체를 공격하여 악창이 나게 하는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은 욥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본 장에는 욥의 일차적인 승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1-6절), 욥에게 악창을 줌으로써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불신을 획책하는 사단의 간계가 기록되어 있으며(7-8절), 또 욥의 아내와 친구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통해 욥에게 혼란을 조장하려는 사단의 교활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9-13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령은 사단의 파괴적인 속성을 알림과 동시에 깊숙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성도를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성도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자신의 도구를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지혜롭습니다. 본문에서 보이듯이 마땅히 최후까지 욥의 곁에 남아서 위로자가 되어야 할 그의 아내는 엄청난 시련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불신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늘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함없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시 146:3). 오늘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사단의 계계를 깨뜨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갑자기 엄청난 재난을 당한 욥이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삶을 탄식으로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장은 '욥의 애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애가를 통해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엄청난 고난에 시달린 욥은 살아있는 것이 결코 죽음보다 낫지 못하다는 비통한 말을 함으로써 심리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갈등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대목과(1-10절),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대목(11-19절), 그리고 죽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희망이 끊긴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는 대목(20-26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염세주의적인 발언을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살 가능성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현재의 삶은 비극이지만 출생도,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욥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장에 기록된 욥의 탄식은 몰살된 재산과 죽고 흩어진 가족들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불행으로 인하여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혼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욥은 자신의 불행이 계속될 것을 염려하였고 이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미래에 대한 근심은 세속적인 불안을 더욱 증대시키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에 대해 의심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해롭다고 지적합니다(빌 4:6 참조). 그러므로 성도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현실적인 축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위엣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신중함이나 경건함이 인간을 재난으로부터 지켜 주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위엣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안전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엘리바스의 변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시종일관 현세적인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던 욥이 하나님의 섭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3:20-26).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욥의 고백을 들은 후,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이 이기적인 것이었고 결국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6절).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인과응보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창 3:8; 롬 6:23; 갈 6:7).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항상 인과응보 사상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도 하지만, 죄인을 회개시키거나(롬 2:4) 성도의 신앙에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시 119:71) 악행을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대신에 뒤로 유보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계 6:11). 의인으로 인정받은 욥의 경우처럼(1:1,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특별한 섭리, 즉 이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에 처하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깨닫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엘리바스는 욥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단정 짓고, 한걸음 더 나아가 욥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입으라고 촉구합니다(1-7절). 사실 인류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나타난 하나님의 보편적인 징계요 심판임이 분명합니다(창 3:16-19). 그러나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적인 주장은 죄에 대해 철저히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강조할 뿐입니다. 문제는 죄인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간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엡 2:4). 우리 또한 엘리바스처럼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선불리 정죄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생활은 겸손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형제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여기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위로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운 징계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17-18절). 즉 고난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벧전 1:7).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17절). 이처럼 고난이 악인에게는 형벌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는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그의 의로움에서 비롯되고(히 12:6),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선한 것이며(히 12:11),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와 함께 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친히 당하신 주님이 오늘도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의 때에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달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엘리바스의 책망을 참다못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4절) 자신의 순결한 신앙을 변호하고(1-7절), 더 나아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며 그 방법으로 죽음을 사모합니다(8-13절). 욥의 이러한 항변은 자신이 혹독한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욥의 이러한 고백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은 다른 한편으로 욥의 신앙적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욥은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설사 고난당할 만큼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인간의 부패하고 죄악된 본성을 망각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과신하는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29-30절).

만일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좀더 겸손했다라면, 엘리바스의 책망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엘리바스의 책망을 통해 자기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습니까? 갑자기 다가온 고난, 참아내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 불평하거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보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며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하면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기도제목 / 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욥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하며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하지만 저녁에는 쉴 수 있고 품꾼은 고되게 일하지만 품삯을 받는다는 기대가 있지만, 욥 자신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탄식합니다(1-6절). 사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삶은 이처럼 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살전 4:16-17).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잠자리에서나마 고통을 잊으려 해도 악몽과 환상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11-16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친 간섭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분초마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심지어 하나님 몰래 침을 삼킬 수 없다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못마땅해 합니다(17-21절).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귀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살후 3:16).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엘리바스와 욥의 변론을 지켜보고 있던 빌닷은 답답함을 느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빌닷은 전통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지만 결국 엘리바스의 인과응보 사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34절).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한 빌닷의 언급은 옳은 말이지만 그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라는 측면만 보았을 뿐 그분의 사랑과 자비라는 면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 생각하는 공의는 ‘고난은 죄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단순히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공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다.

빌닷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닷의 생각 속에 사람이 세운 전통에 근거한 가치관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8절). 그러나 전통이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전통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고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계명을 교훈삼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9). 전통에 근거한 가치관은 인간의 도덕적 인격과 의만을 내세우고 외식적인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의 기초를 삼아야 합니까? 전통에 근거한 가치관은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외식적인 신앙을 만드는 잘못된 전통에 근거한 가치관을 속히 버리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에 대한 엘리바스나 빌닷의 지식은 매우 짧고 단편적인데 비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지식은 그들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2-3절),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4절),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5-10절),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감히 어떤 말도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14-16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잠잠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전 5:2).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사 55:9).

욥은 자신이 비록 이유를 모르는 깊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이 추호도 없음을 고백합니다(4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음을 욥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이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은 은혜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 10:19).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매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원들이 ‘단기 선교’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금까지 욥의 답변은 자신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충고에 대하여 항변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장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고난과 절망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고 있습니다(1-2절). 우리에게도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진지하게 상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4-7절). 이제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 안에서 욥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13-17절).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고난 가운데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세의 고난을 언젠가 끝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계 14:13).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졌겠습니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그때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했고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에게는 고난도 큰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고난도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앞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욥에 대한 소발의 질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6절). 소발은 욥이 말이 많고 교만하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소발은 자신의 신관을 말하는데(7-12절),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항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발은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13-20절). 소발의 권고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사상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현실에서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흑백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발의 충고처럼 부적합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주변 사람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위의 비판을 잘 염두해 두면 자신의 인간적인 특성과 성품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요 3:7). 인간의 경험적 지식이 불완전한 것임을 자각한다면, 자신의 지식을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지적 교만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1-3절), 허물없이 비난을 당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4-6절). 또한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7-12절),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13-24절)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자만을 비웃으면서 인간이 다른 인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된 인간은 모두 제한적인 이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특별히 더 나은 사람이 없이 다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를 다 주관하는 것이므로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흔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연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연을 대할 때 진지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연 속에 묻혀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한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자연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 하시며 움직이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 1:3).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b).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나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본 장은 먼저 욥이 친구들의 독선을 질책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강조하는 전반부와 (1-12절), 하나님께 대한 욥의 굳은 확신이 언급된 중반부(13-19절),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후반부로 (20-28절)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장을 통해 욥은 친구들의 지식이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임을 거듭 주장합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근본 진리에 대해서는 친구들의 견해에 찬성하였지만, 그들이 이끌어 낸 결론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마치 법정에서 자기 입장을 변론하듯 친구들에게 항의하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욥이 가진 견고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대로 확신하는 데 있었습니다. 믿음은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논증할 수 있는 과학이나, 인간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욥의 믿음은 친구들과 같이 전통적 교리나 인간의 경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믿음을 오늘날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극도의 시련에 처했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과거와 같이 지금도 성도들에게 항상 사랑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내로써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하나님을 완전히 의뢰할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현재 닦친 고난의 현장에서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읍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슬플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읍의 결론인즉, 슬픈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읍의 결론은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역경을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고백입니다. 본 장에서 읍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통찰을 보이고 있지만, 읍의 이러한 고백 속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인생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인간은 에덴동산에서의 범죄 이후 언제나 욕심, 정욕, 시기, 육체를 위한 소욕들로 인해 그 마음이 강박하여 환난 날에 임할 진노를 자신에게 쌓고, 교만하여 교훈을 받지 않으며 악을 즐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그분만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은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에서 진정한 인간의 참 모습을 회복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살아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없어질 육체나 위로받지 못할 마음의 상처 때문에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불멸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알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별로 구분하면 욥의 발언에 대한 엘리바스의 비난(1-6절), 짧은 지식과 경험을 탓하는 엘리바스(7-10절), 욥의 의로움에 대한 엘리바스의 책망(11-16절), 악인의 종말에 대한 엘리바스의 설명(17-35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변론에 비해 훨씬 적대적이며 난폭한 어조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욥과 두 번째 변론을 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제는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고 악인의 궁극적인 최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하늘에 있고, 자신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한층 더 강력하게 선포하며 끝까지 희망과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선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지식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곡 사이에 잡초가 있듯이, 지식 중에도 헛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식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황폐화시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운택하게 하는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되, 그러한 지식이 최고인양 내세우는 어리석음에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며(잠 1:7),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도와십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 많은 시간을 내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와 권력과 건강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②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변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엘리바스가 위로했던 말들이 욥 자신이 처한 삶의 정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엘리바스의 논지였던 고난과 죄의 상관관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위로는 자신의 의로움만 강조하고 욥 자신을 근심 속에 빠뜨리는 것이었기에, 욥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개입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비록 자신의 무죄함이 밝혀지지 않고 죽게 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변호해 줄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을 본 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장에서는 욥의 변론을 통해 고통의 극단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변론과 유사하게 다윗도 시편 109편 24-25절에서 동일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훼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욥이나 다윗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과 다윗이 이토록 큰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와 말이니라”(사 54:10).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환난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을 향해 보다 담대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의 고통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중에 처할지라도 고통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장 후반부의 호소적 분위기와는 달리, 본 장은 욥이 다시 자신의 괴로운 감정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욥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결코 자신의 호소가 그릇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욥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죽어 가는 자요 조롱받는 자였습니다(1-2절). 그러나 욥은 친구들에게 주목했던 그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3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변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욥의 호소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태도를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결백에 대한 굳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이러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선용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8-9절).

결국 욥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의인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었고 주님의 변호를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힘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데 있습니다.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확신하는 것이 쉽지만,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산란해지고 혼란을 겪게 되며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섭리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과 확신을 우리 마음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변 환경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는 참 지혜를 주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빌닷의 두 번째 변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빌닷의 첫 번째 변론과 비교해 볼 때(읍 8장) 별로 개선되지 못한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첫 번째 변론보다 두 번째 변론에서 더 위협적인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변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읍에게 제시했던 빌닷도 본 장 후반부에서는 읍과 그의 가족이 땅에서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위협적인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읍을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3절)라고 힐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읍이 자기를 찾아온 세 친구를 짐승처럼 여긴 일은 없었지만, 그가 친구들을 눈먼 우매자 등으로 매도하자 핏김에 자기들을 짐승 취급한다고 공박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한 고난 속에 있는 친구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은 읍의 고난을 무조건 읍의 죄 때문이라고 돌리는 잘못을 하고, 그처럼 무정한 친구들의 비난을 참지 못한 읍은 친구들을 향하여 분을 내고…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나 판단을 결코 신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선불리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고 단정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집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욥은 현실적으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위로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처럼 보신다는 불안한 느낌만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8-11절).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을 풍성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고후 1:3,4).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항상 그런 위로를 피부적으로 느끼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위로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 먹구름이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어도 밝은 해가 그 뒤에 버티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욥은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합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25,26절). 혹시 이대로 죽을지라도 썩을 몸을 벗은 후에 ‘육체 밖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온전히 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욥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욥의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며,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자신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

기도 제목 / 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옅의 친구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 가운데는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본 장에서 옅의 친구 '소발'은 말합니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간이니라”(5절). 혹시 악인이 만사가 형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랑은 잠시뿐이라는 말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슬픔과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멸망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죄의 특성이요 악인의 분깃입니다(29절).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판에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즐거움과 행복과 편안함을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의 세력을 대할 때마다 죄의 낙은 잠시뿐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4-26).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많은 돈과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처럼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삶을 살면, 혹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막 10:30).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복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죄악의 낙을 조금이라도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하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단정 짓고 욥에게 회개를 계속 촉구합니다. 만일 욥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큰 재앙을 만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런 판단에 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7절). 욥의 말인즉,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재앙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당연히 모든 악인들은 불행과 재앙을 피할 수 없을 텐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들은 오히려 평생 사치하고 호화롭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건대, 모든 불행과 재앙이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말이 백번 옳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임하는 불행이나 재앙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행이나 재앙이 죄에 대한 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요 9:2).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요 9:3).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불행이나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뒤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큰 죄를 범했음이 틀림없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을 단정하는 주제 넘는 행동 대신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옳을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요 7:24).

기도 제목 / ①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얻고 출세를 하여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함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장에서 엘리바스는 참된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복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21절).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과 화복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써만 하나님과 화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로 5:10).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것 외에는 달리 화목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복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참으로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은 아주 독특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두 가지 태도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순종하는 욥의 성실한 태도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말씀을 사랑하는 욥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특별히 욥은 말합니다. “내가 …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즉, 하루 세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하루 세끼 가운데 한 끼라도 굶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는 불규칙적이고 불성실한 우리는 아닌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 4:4b). 그렇습니다. 하루 세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중요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해 주고, 영적 생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며, 그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섭취하시기로 결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과 은혜를 풍성히 보여주는 책임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벧전 2:2).

기도제목 / ①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욥은 악인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 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베임을 입느니라” (24절). 악인들은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잘 되어도 어느 순식간에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황제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하를 손에 틀어쥔 사람처럼 기고만장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에 그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악인의 결말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설령 악인이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고 부유하며 평강하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 그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홍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시 92:7).

그러므로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이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경건한 신자들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도 안 됩니다(시 73편 참고).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뿐이고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잠시 고난을 받고 장차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후 4:17).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의 길을 걸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복음의 좁은 길을 걷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이 길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신 길이요 참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잠 21:4b)

기도 제목 / ① 복음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 ② 전 교회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장에서 욥의 친구 발닷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춤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라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2-6절). 발닷의 말대로,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시고 온 우주를 질서 있게 통치하시며 천군천사를 호령하시고 자연의 빛과 말씀의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생각하노라면, 우리 자신은 그저 벌레요 구더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b)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인생을 ‘벌레’와 ‘구더기’에 비유하는 성경의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되십니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의로우심과 거룩하심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동기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기도 제목 / ① 교만하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읍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몇 가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읍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주장하시고(5-6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배열하시며(7절), 구름과 비를 주장하시고(8-9절), 바다의 경계선과 빛과 어두움의 경계선도 정하셨다는(10-13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언급한 후에 읍은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합니다.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 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나라 그 큰 능력의 우뢰야 누가 능히 측량하라”(14절).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읍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능히 측량하라?”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읍이 하나님께서 자연에 행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감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말하면서 동일한 감탄을 터뜨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오늘 우리에게 읍과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감탄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감탄하며 탄복하는지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요?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큰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욥은 악인의 또 다른 특징을 언급합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10절). 욥의 말인즉, 악인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다른 한 가지는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물론 악인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딤후 1:16). 악인도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욥 27:9). 그러나 악인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거나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어려운 때에는 기도를 하는 척 하지만 ‘항상’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를 중단하고 자기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참된 성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늘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크게 기뻐합니다. “나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이다”(합 3:18). 참된 성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환난의 때뿐만 아니라 평탄한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있는지요?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악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

기도 제목 / ①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두며, 항상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모든 피택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주의 만찬

● 찬송/ 284장(주 예수 해변서) ● 본문/ 고린도전서 11:17-34

¹⁷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¹⁸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임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¹⁹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²⁰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²¹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창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 ²³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²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⁵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²⁶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²⁷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²⁸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²⁹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³⁰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고린도전서 11장 17-34절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 1) 17-18절 : 고린도교회의 모임이 해롭기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일 때에 ☐☐이 있었기 때문이다.

- 2) 20-21절 : 주의 만찬과 관련하여 고린도교회가 범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 ①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너무 자주 먹었다.
②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너무 빨리 먹었다.
③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먼저 자기 배만 채웠다.

- 3) 23절 : 주의 만찬을 잘못 시행하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엄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은 ☐☐이 만든 의식이 아니라 ☐께서 친히 정하신 의식이다.

- 4) 24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에서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참고) 렘 31:31-3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³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아나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5) 27절: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30절: 주의 몸과 피를 범한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와 □□자가 많고 □□□자도 적지 않았다”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주의 만찬」의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깊이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만찬, 형제들과도 깊이 교제하는 곳’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주의 만찬에서는 어떤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두 가지 교제

- ① 우리와 □□□□의 깊은 교제
- ② 우리와 □□ □□□의 깊은 교제

두 가지 할 일

① ☐☐☐☐ 게 집중해야 함

② ☐☐ ☐☐ 을 존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함

2) '만찬, 신자들의 위대한 특권'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여러분은 주의 만찬이 어떤 점에서 신자들의 위대한 특권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3) '만찬, 재림 때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곳' 의 단락을 읽
고...

질문)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십시오.

답)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 · ·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한다.
주의 만찬은 · · ·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4) '만찬, 그 합당한 준비와 놀라운 축복' 의 단락을 읽고...

질문)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십시오.

답)

합당한 준비 · · ·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놀라운 축복 · · ·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살핀다.

5) '주의 만찬' 이라는 설교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여러분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만찬에 나아오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 주셨습니까? 어서 와서 이 위대한 축복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기도

1. 감사 /

2. 간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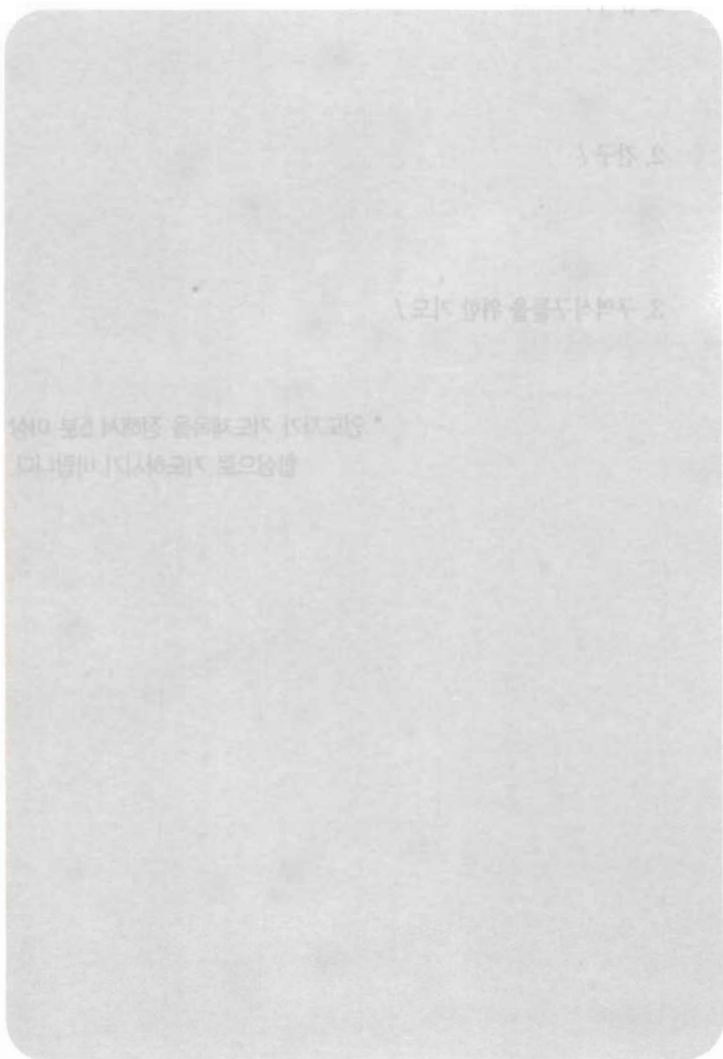
3. 구역식구들을 위한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구약

본문 :



제 2 과 ●●●●●●●●

말씀이 거할 곳

● 찬송/ 325장(주 예수 대문 밖에) ● 본문/ 요한복음 8장 31-37

³¹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³²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³³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³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³⁵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³⁶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³⁷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요한복음 8:31-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1) 31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말씀하십니까?

- 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 ② 말씀을 많이 배우는 사람
- ③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2) 31절: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3) 32절: 진리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우리를 한다.

4) 33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무엇을 늘 자랑했습니까?

- ① 예수님이 자기 나라에 태어나신 일
- ②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 ③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

5) 37절: 하지만 유대인들의 실제 상태와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혈통으로는 □□□□의 자손이었다.

영적인 상태로는 □□□□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곳이 없었다.

참보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하였다.

6) 31절: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2. 설교 읽고서로 나누기

- ◆「말씀이 거할 곳」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말씀을 담아둘 곳이 마음에 있는가?'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보

답) 그들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2) '말씀에 고귀한 자리를 내어드리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현재 상태를 반성해 보고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3) '말씀에 고귀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답) 에 대한 교만

· 이 세상의 것들을 하는 마음

· 우리 자신의 과 에 대한 과 집착

〈보기〉 말씀, 생각, 미워, 전통, 출세, 사랑, 직분, 방법, 고집

4)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 · 우리는 참으로 할 것이다.

· 우리는 말씀에 를 기울일 것이다.

· 우리가 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 다른 사람들에게 을 전할 것이다.

5) 「말씀이 거할 곳」의 설교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오늘 설교를 읽고 배우면서 새롭게 깨달은 바나 느낀 점을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 값은 다 지불되었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며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끝나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멀리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을 자신의 말씀에 맡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할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저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도

1. 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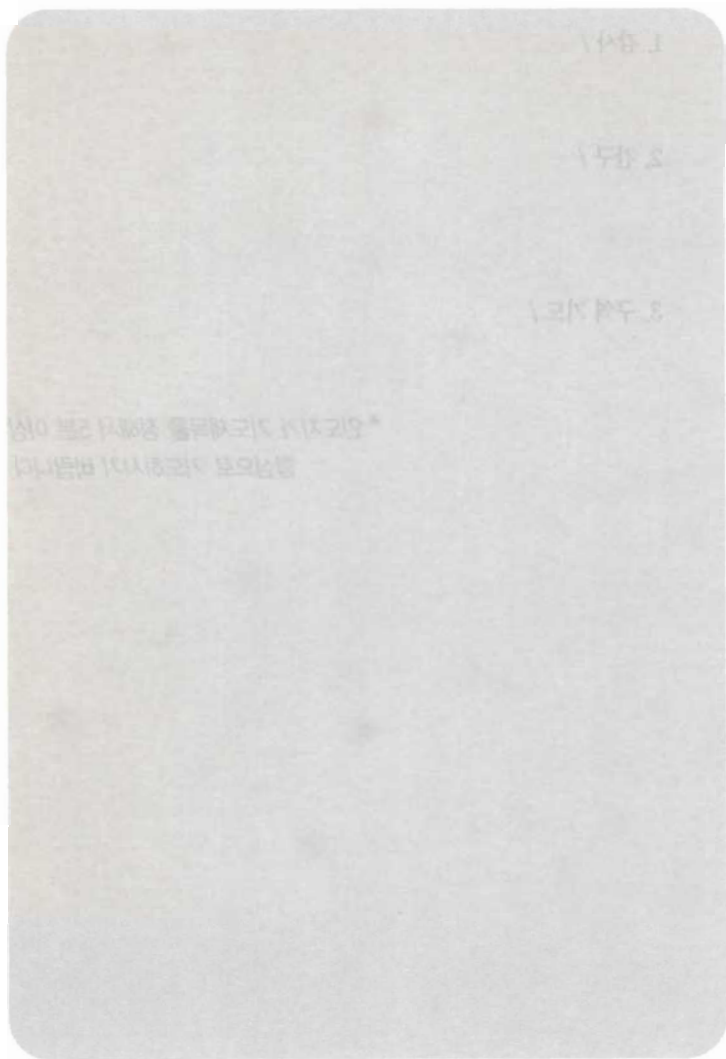
2. 간구 /

3. 구역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제 3 과 ●●●●●●●●

빌레몬

● 찬송/ 278장(사랑하는 주님 앞에) ● 본문/ 빌레몬서 1:1-3

¹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밋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² 밋 자매 압비아와 밋 우리와 함께 군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³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참고〉

¹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
¹⁷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¹⁸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계하라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빌레몬」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단락을 읽고...

질문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벧전 1:22b)라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답)

2)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요즈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답)

3)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단락을 읽고...

질문) 가정을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신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4)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본 적이 있다면, 그 때의 경험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답)

5) 「빌레몬」의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

질문) 이번 설교를 읽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깨달거나 도전받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겸손하게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똑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빌레몬의 마음과 가정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가운데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1. 감사 /

2. 간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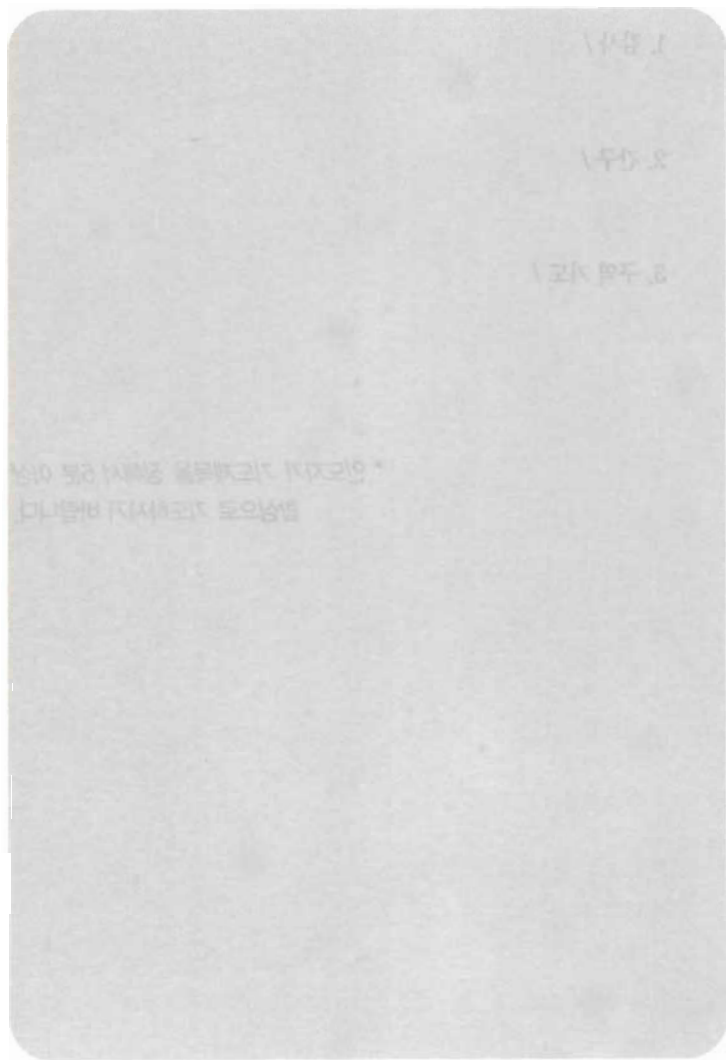
3. 구역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구약

본문 :



제 4과

더욱 큰 은혜

♣ 찬송/ 408장(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본문/ 약 4:6

⁶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참고〉

¹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²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³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⁴ 간음하는 여자들 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⁵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아고보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 1) 2-3절: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4절: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6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맞는 것을 모두 골라보십시오.

- ①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풍성히 은혜를 주신다.
- ② 열심히 구해도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신다.
- ③ 성품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어도 은혜를 주신다.
- ④ 믿음이 있어서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

4) 6절: 여기에서 교만과 겸손은 각각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만 - ()

겸손 - ()

오시삼보이폴 올물물 불물 불이 토그삼중 올샘물 불이 사보도이

저행 코행 부도행 음부중 요행은 부부보이삼사하 이글읽기 : 장8-8 (1

안시입맛무 글위이 안행못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더욱 큰 은혜」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행 음부중 요행은 부부보이삼사하 이글읽기 : 장8-8 (1

1)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우리에게 믿음이나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답)

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일단 부인해야 한다.

② 그런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③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생각해야 한다.

④ 우리보다 훌륭한 신자의 믿음과 비교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⑤ 그리스도 불행은 구약의 믿음과 비교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⑥ 그리스도 불행은 구약의 믿음과 비교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2) '죄가 많을수록 더욱 넘치는 은혜'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함이 크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일수록 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3)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이라 시로구나' 라고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을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 4)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사 66:2b)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답) · 마음의 가난함 -

· 심령에 통회함 -

· 말씀을 인하여 떼 -

5)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위의 세 가지 특징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 보고,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고백하는 동시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말해보십시오.

답)

6) '겸손히 돌이키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비록 지금은 마음이 교만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눅 15:22-24, 겔 33:11).

답)

나가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오늘 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해 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십시오. 아멘!

기도

1. 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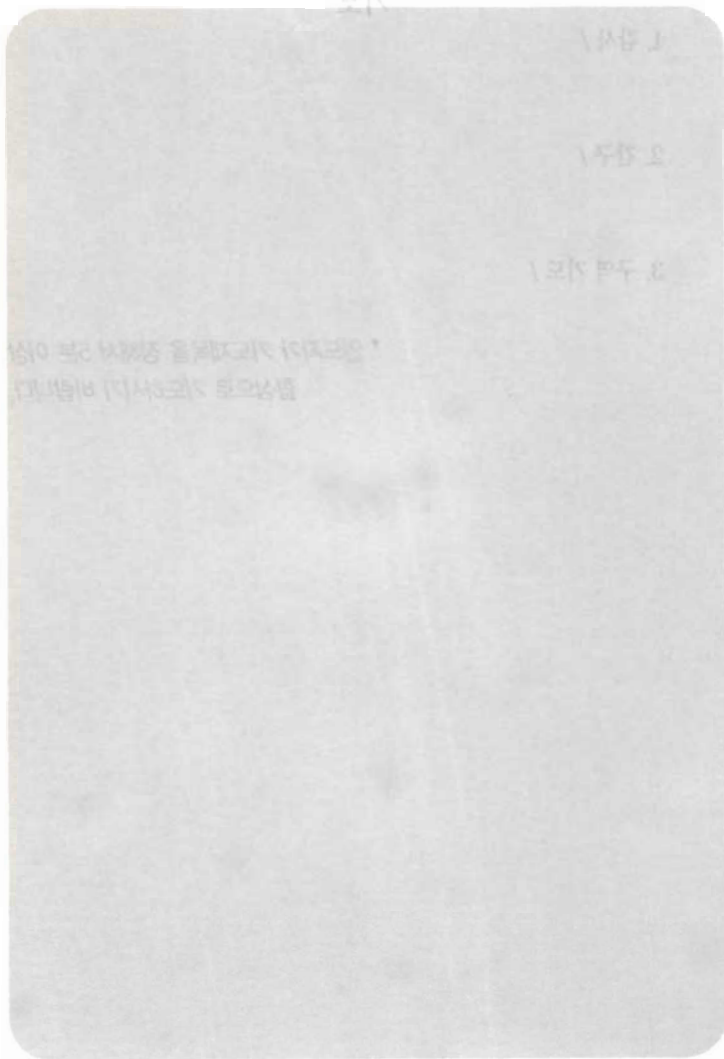
2. 간구 /

3. 구역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제 5과

복음을 순종하라

♣ 찬송/ 379장(주의 말씀 듣고서) ♣ 본문/ 롬 10:16-21

¹⁶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¹⁷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¹⁸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¹⁹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²⁰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²¹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로마서 10:16-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16절: 선지자 이사야가 토해내는 탄식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

2) 17절: 17절 말씀을 함께 외워보십시오.

3) 17절: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을 일

4) 21절: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 치 아니하고 말하는 백성”

- 5) 히 4:2,6: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들은 바 말씀에 대한 과

참고> 히 4:26 ²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함지 아니함이라... ⁶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 6) 요 3:36: 믿음과 순종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참고> 요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복음을 순종하라」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복음, 모두가 순종해야 할 명령'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우리가 순종해야 할 복음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은 각각 무엇입니까?(막 1:15)

답)

2) '복음을 거부하는 것보다 큰 죄는 없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의 결국은 각각 무엇입니까?

답)

믿고 순종하는 사람 ·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
거부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 · 은혜와 구원과 자유를 얻는다

3) '복음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의 단락을 읽고...

질문) 복음을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적어보십시오.

답)

4)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복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맞는 것을 모두 골라보십시오.

답)

- ① 예수님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 ② 우리 자신의 의와 의지를 다 포기하는 것
- ③ 주의 종이 가르치는 것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
- ④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 아래서 사는 것

5)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복음에 대한 전적인 순종은 한 마디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답)

6) 「복음을 순종하라」의 설교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복음을 순종하는 삶과 관련하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며,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회개하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잃어버려진 영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1. 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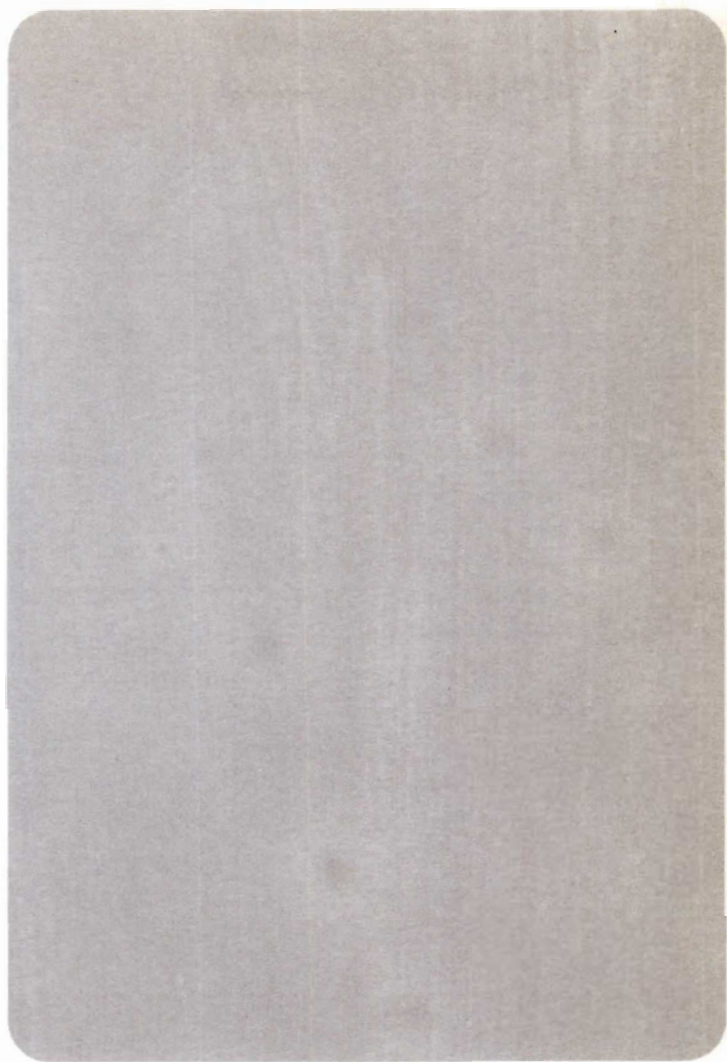
2. 간구 /

3. 구역 기도 /

*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정해서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남성구역공과 설교

더욱 큰 은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약 4:6)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은혜를 항상 베푸시며 언제나 더 많이 베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도 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보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동기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덕이 있든지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 외적인 봉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일의 근원임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훌륭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며,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은혜는 오직 모든 은혜의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고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거나 실패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더욱 넘치는 은혜

오늘의 본문은 대조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다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읽어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3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4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5절). 이와 같은 진리들은 6절에 기록된 또 다른 진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6절). 죄가 많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많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벧전 5:6).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위하여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죄인들은 더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더 큰 은혜를 흔쾌히 베푸사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더 많이 주시되 한없이 주십니다. 거기에는 정해진 한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참으로 아름다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심

을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6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옛 본성이 강력하게 역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통해 힘을 얻고 더 넓은 싸움터로 나아가거나 더 어려운 의무들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통해 위로를 얻고 매일의 삶의 더 깊은 고난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소망이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는 우리가 됩시다.

신자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때에만 영적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고 큰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현재를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내다 보십시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겸손히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시 138:6).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잠 3:34). 이사야 66장 2절은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15하13:13 을남나하 10:10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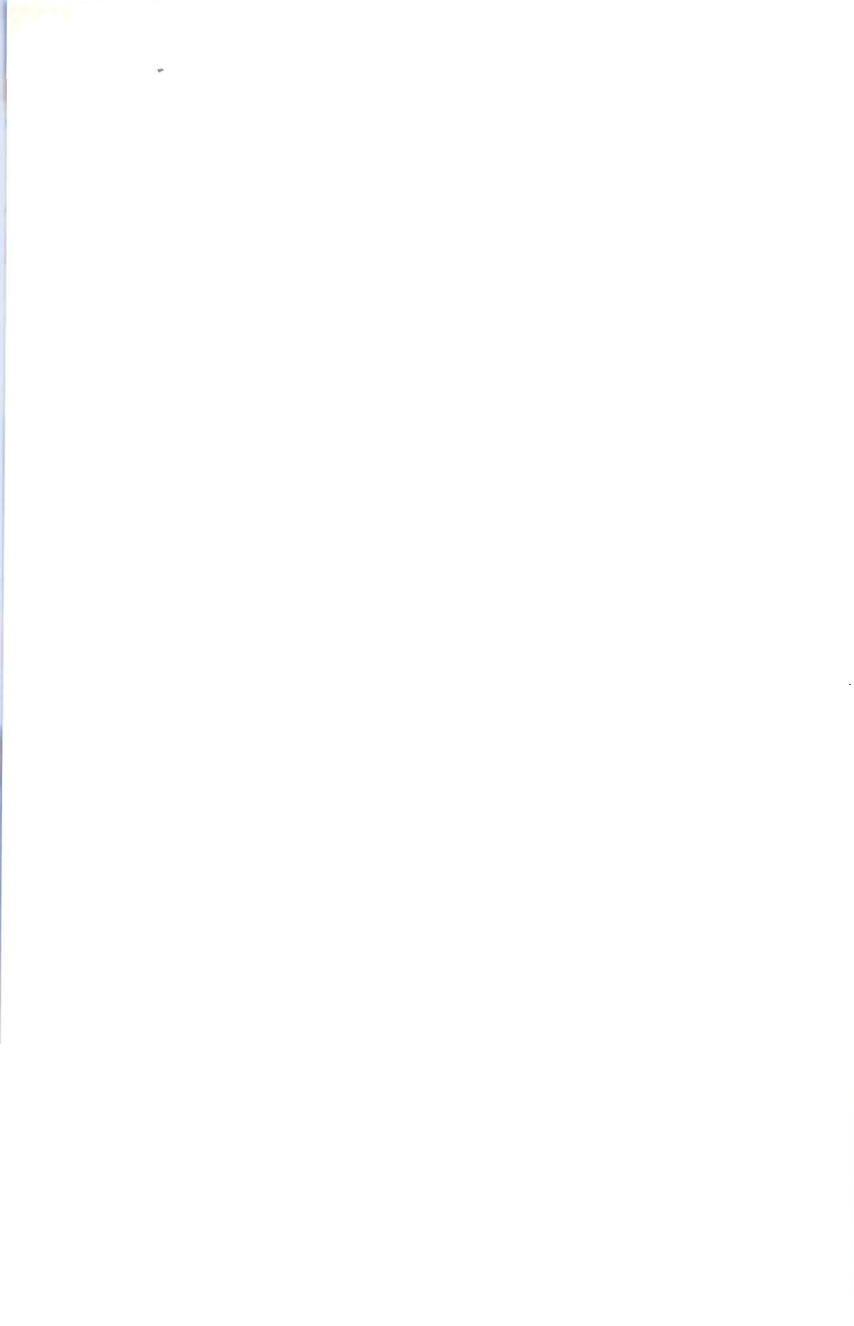
10:10은 15하13:13 을남나하 10:10은 15하13:13 을남나하 10:10은

겸손히 돌이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좋은 예화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눅 15:21). 그가 범한 죄는 참으로 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은혜는 훨씬 더 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들여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눅 15:22-24).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은혜보다 훨씬 더 큼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시 32:8-10). 하나님은 악인들의 죽음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해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십시오. 아멘!

454이클 하승삼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사회자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4년 7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최성규(1-7일), 이재영(8-14일), 조규호(15-22일),
이태복(23-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이태복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판매품]
